

닭 벼슬이 왕관이 될 날을 기다리면서...



박 희 권 상무
(주)하림
편집위원장

우리 회사 화장실은 항상 즐겁다. 왜냐하면 회사 여직원 모임인 '하미즈'에서 매달 초에 아주 재미있는 글귀들을 예쁘게 장식하여 벽면에 붙여 놓아서, 오줌 누는 고추에게는 '쉬' 하는 쾌감을, 눈에는 예쁜 그림

과 글로 인한 안광을, 입술에게는 살며시 스며 나오는 미소를 주기에 화장실 풍경이 아주 평화롭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과도 어색하지 않고 정답게 인

사를 나눈다. 작은 정성이 백 배, 천 배의 효과를 발휘하는 좋은 사례이다.

2008년은 참으로 길고 힘들었던 한해이다. 초봄에 찾아온 AI가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더니,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올라가는 옥수수과 대두 등의 곡물가격 폭등, 이에 질세라 널뛰기하는 국제 석유가격 양등은 육계 생산비를 1,500원대까지 상승시켰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육계 1kg당 생산비 800원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하여 매진했는데 격세지감이라고 해야 하나 아니면 산업의 퇴보라고 해야 하나. 다행히 성수기에는 시세가 2,000원대를 유지해서 호시절을 느껴봤지만, 이것도 잠시 다시 우리 육계산업 업체 대부분은 잠수를 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가 끝이 아니다. 달러화 강세에 따른 환율 급등은 우리의 허리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어 올해 결산할 때 얼마만큼 손실이 날지도 예측할 수 없어서 올 겨울은 유난히도 추운 계절이 될 것 같다.

우리 육계산업에서는 수급(需給)이라는 용어를 참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사전적 의미로는 '수요와 공급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여전히 많이 사용해야 할 말이고, 이것을 잘 해야만이 우리 산업이 존재하고, 발전할 수 있다.

그런데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목적으로, 같이 사용했건만 수급을 받아들이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사뭇 다르게 작용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한 부류는 파이를 키우는 것으로, 다른 부류는

생산을 줄이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해서 시장에 혼란이 오고, 생산 과잉에 따른 공급 초과로 가격이 폭락하고 생산비 이하로 닭고기 가격이 유통되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시킨다. 네 탓이라고. 이제는 진짜 머리를 맞대고 수급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한 방향으로 정렬해서 같이 앞으로 나아가는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얼마 전에 미국 인티업체에서 30년 이상 근무하시다가 정년을 몇 개월 앞두고신 분과 육계산업에 대한 감회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 할 기회가 있었다. 한국인으로서 미국 직장에서 안정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 시간과 경쟁사보다 앞서기 위해서 고민했던 기억들, 긴장과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이루어 놓은 업적을 생각하면 감회가 새롭다는 말씀이었다.

특히 올해처럼 곡류가와 석유가가 높아 생산비가 높아질 때에는 미리 현대화된 계사(무창계사)를 많이 확보해 놓은 것이 사료효율을 높여줘서 타사보다 유리한 고지에서 영업을 할 수 있어 자기 회사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자랑을 했다.

실제 미국 육계시장도 올해에는 상위 성적의 몇 개 업체만 흑자이고, 나머지 대부분 업체는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고 했다. 미국내 1, 2위를 달리고 있는 필그림 프라이드사와 타이슨사도 적자를 기록하여 경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나라처럼 무창계사가 20% 미만인 경우에는 더욱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

었다. 미리 준비하는 업체만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여 살아 남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식품산업은 IT 산업과 더불어 촉망받는 산업이다. 식품 중 식육산업은 더 유망하고, 특히 3고 1저의 닭고기 산업은 식품산업 식육산업 중 가장 비전이 있는 산업이라고 모두가 인정한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 닭고기 산업의 재무재표를 보면 과연 비전이 있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 올해의 성적으로는 비전이 없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왜 우리 육계산업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어야만 하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진정성(眞正性) 있게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해야 할 주요 사안에 대해서 대승적 차원에서는 긍정하면서, 세부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는 육계산업의 발전 측면보다는 우리의 이익에 조금만 손실이 예상되면 즉시 반대하거나 거부하는 소아적 현상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

새해에는 육계산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자랑으로 여기고, 사랑스런 후배들에게 같은 업종에 근무하는 것을 권할 수 있는 우리 산업이 되었으면 좋겠다.

옛날 할머니께서는 집에서 닭고기 요리를 먹을 때 닭 뼈슬은 항상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 특별식으로 주셨다. 이 깊은 뜻이 내년에는 찬란하게 빛나는 해가 되기를 간절히 빌어본다. 